

성인학습자의 죽음 준비교육 효과 연구

김병남¹⁾, 김동일²⁾

A Study on the Effects of Adult Learners' Death Preparation Education

Byeong-Nam Kim ¹⁾, Dong-Il Kim²⁾

요 약

인간은 태어나면 모두 죽음을 맞이한다. 이러한 삶의 수순은 삶과 죽음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연결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누구도 쉽게 삶을 죽음까지 연결하진 못한다. 사는 것에 대한, 생명에 대한 애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죽음을 경험해 볼 수 없는 미지의 두려운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죽음을 경험해 볼 수는 없겠지만, 준비는 할 수 있다. 누구나 두려워할 죽음을 죽음 준비교육을 통하여 두려워 할 죽음이 아닌 친숙하게 가깝게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준비하는 죽음을 통해 삶을 강화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대상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성인학습자 5명과 함께 죽음에 관한 강의와 죽음에 대한 생각 등 학문적인 연구과 현장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죽음 준비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죽음준비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경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죽음준비교육을 경험하였을 때, 죽음의 실체를 파악하고, 삶의 목표를 다시 한 번 점검할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죽음준비교육 전과 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게 되었다는 성인학습자들의 결과는 죽음준비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죽음 준비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성인학습자, 죽음, 준비교육, 웰다잉, 죽음교육프로그램

Abstract

Humans die when they are born. This order of life made it possible to look at the connection line without separating life and death. However, no one can easily connect life to death. It may be considered to be an attachment to life and a love for life, but it has become an unknown and fearful object that cannot be experienced. You may not experience death, but you can prep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rengthen the life through the death of preparing and recognizing that the death to be feared was as

Received (April 7, 2020), Review Result(May 23, 2020)

Accepted(June 14, 2020), Published(June 30, 2020)

¹⁾Doctorate in education, 61027.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Education Graduate School, Kwangshin University, 36 Yangsantaekjiso-ro, Buk-gu, Gwangju, Korea

E-mail: griun4ram@hanmail.net

²⁾Lecturer, 61027,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Education Graduate School, Kwangshin University, 36 Yangsantaekjiso-ro, Buk-gu, Gwangju, Korea

E-mail: ks04014@hanmail.net

ISSN: 2383-5281(Print) AJMAHS

ISSN: 2383-7268(Online) Copyright © 2020 HSST

close and familiar as the death to be feared through death preparation education. The subject of this study proved its effectiveness in preparing for death through a program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based on academic research and field experiences, including lectures on death and thoughts on death, along with five adult learners with various occupations. As can be seen from the experiences of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it was said that when the education for preparing for death was experienced,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reality of death and check the goal of life once again. In addition, the results of adult learners that the fear and anxiety of death before and after death preparation education have been resolved can be thought of as having the effect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suggesting that a more versatile death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is needed.

Keywords: Adult Learners, Death, Preparatory Education, Well Dying, Death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1. 서론

현대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 2010년~2060년 보도 자료에 의하면 지금은 인구 10명에서 9명당 65세 이상 노인이 1명이지만, 2040년이 되면 인구 3명당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그리고 2060년이 되면 전체 국민의 40%가 65세 이상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1950년대 말에는 52.4세, 1980년에 65.8세이었으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0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남자 71.4세, 여자는 79.2세이다. 50년 동안에 약 20년 이상을 더 살게 되었고, 18세기 유럽인들보다 거의 세배쯤 오래 사는 셈이다. 따라서 한국도 평균 수명이 제법 긴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재 평균 수명은 80세를 넘어섰고, 기대수명에 의해 100세를 대비하여 인생을 준비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물론 오래 산다고 건강할 것은 아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만을 뜻하지 않고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안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도 죽음의 굴레를 벗어 버리지 못하고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인간에게 죽음이란 피해갈 수 없는 것이며 편안하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자연적인 우주의 순환이다. 이러한 이유로 죽음은 부정적이고 금기시함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탐색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다. 하지만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삶의 태도나 생활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삶과 좋은 죽음을 위해 죽음 준비교육은 생애에 있어 빠를수록 더욱 더 좋은 삶의 마무리가 될 것이다[1].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건강하고 잘 사는 삶에 집중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죽음은 예고 없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죽음이 다가올지 모른다. 특히 현대에는 돌발적인 사고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상황인지라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이처럼 죽음은 노인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이 일어나는 일인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도 싫고 부담스러운 생각으로 접어 버리고 만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삶을 고독과 절망감의 수렁에 사로잡게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죽음보다는 대부분이 질병으로 인한 오랜 병고 끝에 죽음을 맞이하거나 노화 과정의 결과로 신체의 기능적 쇠퇴로 인한 에너지 소멸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 [2]. 그래서 임종과 죽음은 노화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삶의 사실들이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는 성장과 변화에 집착하여 개인적인 발전과 성취는 높게 평가해 온 반면 노화와 죽음에 대한 가치는 소홀히 평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부정하고 회피하고자 하였으며 죽음에 대한 문화를 탐색하고 연구하는 것을 등한시해 왔다.

현재 성인들을 위한 죽음 준비교육 프로그램은 운영 주체에 따라 비조직적이고 그때그때의 유행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성인들의 학습 욕구를 위해 여가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제공되어 있지만, 성인의 생애 정체성 확립이나 초월적 학습을 위한 교육적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성인을 위한 죽음 준비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자 중심으로 전달식의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 주도형의 교육의 이루어지고 있어 내실 있는 교육이 되지 못한 형편이다. 성인 교육프로그램은 지식이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성인들이 자신이 살아오면서 축적된 경험을 인출해 내고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나는 프로그램이 바람직하다[3]. 이는 성인들의 광범위한 연령과 경험의 폭이 넓어져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다양한 학습집단이므로 성인기의 교육은 주입식의 교육보다는 성인들이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험을 학습의 자원으로 활용하여 과정(process) 중시하는 프로그램 기획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처럼 죽음 준비교육을 통하여 웰다잉(well-dying)은 곧 웰빙(well-being)과 같은 맥락이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모든 생애의 성장 기회로 삼아 죽음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어 남은 생애의 의미를 찾고 삶의 질 향상과 적응을 돕는 데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양한 성인들의 연령대를 통하여 좋은 죽음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 준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죽음의 실체를 파악하고 삶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둘째, 죽음 준비교육 전과 교육 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의 해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죽음의 개념

살아 있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다.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은 죽음을 경험한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절대적인 경험이며 되풀이할 수 없는 사건이다. 반복할 수 없는 유일한 사건이며, 누구든 피할 수 없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모든 종교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었다. 그런 만큼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해석들이 존재한다. 죽음이란 의식의 소멸, 즉 종말론적 해

석과 다른 하나는 삶의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는 통로라고 보는 것, 내세론적 해석 두 가지이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압축하면 결국 삶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삶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철학을 통해서 해왔다고 한다면,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는 종교가 그 해답을 제시하였다[4].

죽음의 문제는 삶의 문제이고, 이 삶은 어떻게 죽느냐는 삶을 의미 있게 완성하는 일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의 역설성을 지니는 것은 죽음이 결국 삶의 총체이기 때문이다[5].

죽음학(Thanatology)이란 죽음과 관련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학제적 접근으로 죽음의 과정, 임종 간호, 비탄, 죽음의 철학, 죽음의 의미, 죽음의 고지(告知), 안락사, 자살, 민족·문화·종교에 따른 사생관(死生觀)의 차이, 사후의 생명, 죽음의 공포 등의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6].

죽음 준비교육을 죽음교육(deathe education)과 죽음상담(deathe counseling)의 두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죽음교육(deathe education)은 죽음과 관련한 다양한 지식을 유용하게 하며 죽음에 대한 가치와 태도가 인간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활동이다. 죽음상담(deathe counseling)은 자신의 죽음이자 유의미한 타인의 임종 시에 겪게 되는 심각한 상실감의 위기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상호 인격적 과정이다[7].

죽음 준비교육이란 죽음, 죽음의 과정, 사별과 관련된 모든 측면의 교육을 포함하는 것으로, 죽음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지식, 태도, 기술이 학습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죽음 준비교육은 죽음의 과정과 죽음의 현상을 다루는 형식적, 제도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도로 죽음과 관련된 정보를 알리고, 어떤 태도를 조장하는 시도로써 죽음이 삶이라는 사실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다[6]. 죽음 준비교육 프로그램은 형식적 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대상에 한정이 없는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이다. 또 죽음 준비교육은 죽음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관한 우리들의 감정과 관련되어 있고, 슬픔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슬픔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한다[8].

이와 같은 죽음 준비교육은 죽음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다룬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9].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웰다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총 5명의 성인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 연령대는 40대 초반 1명, 40대 중반 2명, 50대 초반 1명, 50대 중반 1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총 5명의 참여자들은 웰다잉 프로그램을 한 번도 참여한 경험이 없으며, 모집홍보, 지인의 권유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표 1] 연구대상

[Table 1] Study subject

성명	성별	나이	교육수준	직업
연구 참여자1	여	42	대졸	예술가
연구 참여자2	여	45	대졸	사업가
연구 참여자3	여	47	대졸	상담사
연구 참여자4	남	50	대졸	강사
연구 참여자5	남	54	대졸	목사

3.2. 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의 대상 프로그램은 G시의 M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Well-dying이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죽음 준비교육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9년 총 4회기로 이루어졌다.

본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삶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소중한 가치 찾기, 명상 및 유언장 작성, 새 생명체험, 주도적인 삶 찾기의 과목명으로 구성되었다. 죽음에 관한 강의와 죽음에 대한 생각 등 학문적인 연구와 현장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죽음 준비교육 프로그램이다.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프로그램 회기별 내용

[Table 2] Program Session Contents

주제	세부내용	소요시간	교수방법
1. 자신의 소중한 가치 찾기	- 세상 속에서의 나 - 나는 누구인가? - 나는 거룩하고 소중한 존재 - 내 안에 잠든 거인 깨우기	90분	강의 질의응답
2. 명상 및 유언장 작성	- 나의 인생 관찰 - 마지막 편지쓰기 - 유언장 낭독	30분	강의실습 실습발표
3. 새 생명체험	- 입관체험 - 뉘우침과 거둬나기 체험 - 마음의 상처 치유 - 서원하기	90분	현장체험 실습
4. 주도적인 삶 찾기	새로운 도약과 나의 각오	30분	강의 체험발표

3.3.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19년 11월 중순부터 2019년 12월 중순까지 진행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실시 후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모두 흔쾌히 응해 주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반구조화 된 면담을 진행하며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취를 진행, 이를 기록하여 자료로 이용하였다. 이 밖에도 연구 참여자가 직접 쓴 나의 인생 자서전 쓰기, 나의 부고(訃告) 일지, 마지막 편지쓰기, 묘비명 작성, 새로운 각오 등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4. 연구결과

4.1 프로그램의 효과성

프로그램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죽음준비교육을 통한 삶의 목적에는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를 [Table 3]과 같다.

[표 3] 죽음준비교육을 통한 삶의 목적에 대한 도움.

[Table 3] Help with life purpose through death preparation education.

대 상 자	나를 찾기	용서	화해	화합
연구 참여자1	○	○	○	○
연구 참여자2	○	○	△	○
연구 참여자3	○	○	○	○
연구 참여자4	○	○	○	△
연구 참여자5	○	○	○	○

(○: 만족, △: 잘모름, ×:없음)

[표 4] 죽음준비교육을 통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해소

[Table 4] Resolving fear and anxiety about death through death preparation education

대 상 자	두려움 해소	불안해소
연구 참여자1	○	○
연구 참여자2	△	○
연구 참여자3	○	○
연구 참여자4	○	△
연구 참여자5	○	○

(○: 네, △: 잘모름, ×:아니오)

4.2 참여자 소감

연구 참여자1

“참여하기 전에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과 빈번한 싸움들은 남편에게 서운한 생각들로 인함이라 생각하며, 남편 탓으로 돌리고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돌아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서운하게 생각했던 것 같네요. 물론 완전하게 이번 교육을 통해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내 삶의 긍정적인 자세로 변화를 즐기고 노력하고 싶어요. 감사드려요.”

연구 참여자2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없었는데 만약 내일 죽는다면 이려고 있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 인생 더욱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연구 참여자3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하다 보니 막상 내 안의 삶의 만족도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를 상담하면서도 그냥 형식적이고 만족감도 없이 일했던 모습이 후회스러워요.”

연구 참여자4

“강사로서 현재의 삶이 매우 감사해요. 알고 있는 정보를 가르치는 일이 즐거웠으나, 내면의 고갈됨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쳤었는데,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데로 자족하면서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느끼네요.”

연구 참여자5

“목사라는 것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열심히 목회에 전념하였다가, 죽음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 번 성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들이 느껴졌고, 막연함으로 바라보는 천국을 죽음준비교육의 간접적인 체험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바라보고 더욱 열심히 목회를 할 것입니다.”

5. 결론

본 연구의 참여자는 G시의 M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한 총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4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반구조화 된 질문지와 면담을 통해 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간을 탄력

적으로 조정하면서 유연하게 진행하였다.

죽음 준비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관을 회복하고 인간관계 개선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동안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을 느끼고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공동체의 중요성도 가지게 되고 조직의 또는 기관의 목표를 위한 능동적인 자세가 갖게 되었다.

죽음 준비교육의 목적은 삶의 유한함을 알고 살아 있는 동안 올바른 내세관을 확립하고 유의미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죽음을 의식하여 생명의 유한성을 자각한다면, 삶의 중요성을 깨달아 함부로 살지 않을 것이다. 특히 노인을 위한 죽음 준비교육을 통해 알찬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임종 시에 남아 있는 자에게 오히려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경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에 있다. 또 다른 죽음 준비교육의 목적은 죽음에 대하여 연연해하지 않는 경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우리가 죽음을 부정하고 배제할 때 오는 결과를 김균진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아주 집착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서 오는 결과는 도덕성의 결여와 자기 이익과 쾌락만을 추구하여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게 된다[5].

우리가 삶의 일부로 죽음과 이별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작별을 위해 시간을 낼 것이다. 우리는 작별을 연출하며 그것을 즐긴다면 아름다움의 시작이 될 것이다. 부활을 위해 치러야 할 것은 죽음이다. 그리고 죽음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제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없이는 시작도 없다[10].

죽음이 주는 교훈적 의의와 정신적인 각성을 통해서, 죽음을 정서적 재난과 육체적 고통의 시간으로 보는 고정관념과 죽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버리고, 죽음은 건강한 삶의 일부라는 것과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간병이 사회적인 삶의 소중한 일부라고 인식하는 데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죽음을 설계한다는 것은, 죽음의 시각으로부터 삶을 되돌아보는 생의 설계를 의미한다. 이것은 곧 영혼에 대한 정의와 기원을 간직한 인간의 자긍심을 창출해 나가는 작업인 동시에 완성을 향해 가는 끊임없는 순례를 이어가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 준비교육 프로그램은 아직 체계적이지 않고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21세기 사람의 평균 수명의 연장과 의료 기술의 발달, 생명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사회적인 요구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효과적인 좋은 죽음 준비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둘째, 프로그램이 특정 강사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외부 강사가 필요하다.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강사들의 협업 관계를 통하여 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노년기의 생애 발달과업인 자아 정체감 형성을 위하여 종교적인 영향이 필요하다.
넷째,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하고 교육 대상자의 연령, 종교, 특
징과 교육기관의 물리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 한다.

References

- [1] S J Lim, S H Song (2012). The Effects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on Attitude to Death, Death Anxiety, and Life Satisfaction,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2] Kurlychek, R. T. (1977). Death education Services Services Services: Some considerations of purpose and rationale. *Educational Gerontology*, 2,43-50; Hyung-Kyu Park, Re-quoted in 2009
- [3] Schaie, K. W. & Parr, J. (1981). *The modern American College: Responding to the New Realities of Diverse Students and a Changing Society*. SanFrancisco: Jossey-Bass
- [4] H J Jou (2012). Theological understanding and improvement plan of the funeral culture of the Korean church, Ph.D. dissertation.
- [5] S S Kim (2007).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curriculum for death preparation for the elderly in Korean church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Theology, Seoul Christian University.
- [6] Warren, W. G. (1989). *Death Education and Research : Critical Perspectives*. The Haworth Press
- [7] Olshansky, S. J. & Carnes, B. A. (2001). *The Quest for inunortality*. Young Taek Jeon, (2002). *How long can humans live?* Seoul: Guri.
- [8] E J Lee (2004).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s for senior learners, Ph. D. dissertation at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 [9] Alfons Deeken, *How to deal with death*, Oh Jin-tak, (2002). *How to face death*, Seoul: Gungli.
- [10] Zeit by Karlheinz A. Geibler (1999). Park Gye-soo. *time*. Seoul: Seokpil.